

기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만드는 안전한 일상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만드는 안전한 일상 화재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상당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다. 이 제도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발견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이를 확인한 뒤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불법행위는 '습관'이 되고, 사고는 '순간'에 발생한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불법행위는 비상구와 피난통로 관리 소홀이다. "잠깐이니깐 괜찮겠지", "오늘만 막아두지"라는 생각이 쌓여 어느새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화재 발생이라는 단 한 번의 순간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과거 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야간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비상구 앞에 적치된 물건 때문에 대피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 조사 결과 "연기 확산이 조금만 더 빨랐어도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시설은 이전에 시민 신고로 비상구 관리 위반이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신고가 없었다면 위험은 그대로 방지됐을 것이다.

신고포상제는 처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신고포상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감시'나 '고발'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다. 목적은 오직 예방이다. 불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바로잡고, 더 큰 사고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시민 신고를 계기로 현장 점검과 안전지도가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전통시장에서는 과거 시민 신고로 소화기 적치 불법행위가 시정된 이후, 실제 화재 발생 시 상인이 즉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한 번의 신고가 수많은 피해를 막은 셈이다.

안전은 누군가의 몫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다 소방시설은 평소에는 풍소를 잊기 쉽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단 하나의 생명줄이 된다. 그 생명줄이 불법행위로 무력화된다면, 화재는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사고가 아니라 재난이 된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거창한 제도가 아니다. 생활 속 작은 관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신고하겠다"는 선택이 쌓일수록 지역사회는 더 안전해진다.

한 건의 신고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한 가족의 일상을 지킬 수 있다. 시민의 응기 있는 신고가 곧 우리 모두의 안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안전한 일상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위승빈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 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권관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스> (062)528-4566
회장실 (내선)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3,000원 · 1년 157,000원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광속의 시대 추월해 가는 살맛 나는 세상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진 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런 천민적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다. 그래서 합리주의적 원칙과 사고에 입각한 반짝이는 머리 없는 더이상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무리 영특하고 판단력이 뛰어난 경영자라 할지라도, 귀와 눈을 혼탁하게 하는 자가 주변에 포진해서 간언과 허언을 자꾸 늘어놓으면 결국에는 총기(聽氣)를 놓쳐 본인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는 조직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내밀(內密)하게 듣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을 호동쳐서 물리쳐버린다. 자고로 환관(宦官)이 왕의 눈을 가리고 준동을 할 때, 그 왕조는 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도, 좋은 언행 여부를 잘 골라내는 것도 그 경영자의 능력이다. 당(唐) 태종이 오늘날까지도 현인으로 명명되어지는 것은 천인척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서 공평무사한 인사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진도소방서는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난방용 화목보일러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화목보일러는 구조상 연료가 완전히 연소되기 전에 불씨가 남아 있을 수 있어,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져도 주변 가연물에 쉽게 불이 옮겨붙을 위험이 있다.

“겨울철 화목보일러,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집니다”

화목보일러 사용 시 다음과 같은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 첫째, 사용 전 점검하기다. 보일러와 연통에 녹이 슬었거나 틈이 생기지 않았는지 한 번만 살펴봐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둘째, 연통 관리하기다. 그늘음은 금방 쌓이기 때문에 가끔씩 청소하고, 필요하면 수리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연통이 지나가는 부분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해 두면 더 안전하다.

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주변을 조금만 비워도 화재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다섯째, 재 안전하게 처리하기다. 겹보기엔 식은 것 같아도 속에 불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재는 뚜껑 있는 금속통처럼 타지 않는 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식혀야 한다.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내 집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기본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노은서

오늘의 운세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음력 12월 19일)

Grid of horoscope predictions for various zodiac signs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with corresponding zodiac icons and text.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